

류지현 군이 3월 12일 전북불교대에서 첫 강의를 들으면서 활짝 웃고 있다.

불교대학에 초등학생 입학

13살 류지현 군 전북불교대에
“교재 재미있어 공부하고 싶었어요”
아빠 류주영씨도 졸업...부자가 동문

불교대학에 초등학교 학생이 입학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전북불교대학 제17회 불교학과에 입학한 류지현(13·군산 개정초등 6년) 군. 3월 12일 불교대학 첫 강의(강건기 학장의 '부처님 생애')를 들은 류 군은 “어려운 말이 있기는 하지만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 것 같다”며 강의소감을 밝혔다. 류 군은 “아빠가 보던 불교대학 교재와 책이 재미 있어 공부하고 싶었다”며 “불교대학에 입학시켜준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류 군의 부친 류주영씨도 전북불교대 14회 졸업생. 처음엔 너무 빨리 불교공부를 하면 ‘건너질 것

을까’ 걱정되어 입학을 망설였다. “인연인가 봅니다. 위로 형 누나가 있는데 유독 막 내 지원이 불교에 관심이 많아요. 오히려 일찍 불교를 배우면 사춘기뿐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만나는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침착하고 서늘시달한 성격인 류 군은 초등학교 친구들도 항상 앞에서 이끄는 편이다. “우리반 26명 가운데 25명이 교회에 나가고 저 혼자 불교예요. 그렇다고 종교로 친구들과 문제된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제가 먼저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깐요.” 불교대학 입학에 앞서 지난 1월, 동계 수련회에 동참했던 류 군은 수계식에서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제사로 해명(慧明)이란 법명을 받았다. “큰 스님이 반야심경 마지막 구절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깨달음의 길로 가라는 것인데 나쁜 마음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남을 배려하는 부처님 마음으로 살래요.”

글·사진=이준엽 기자



신심과 열정으로 절 외호

서울 본원정사 해명화·수덕화 보살



해명화 보살(맨 오른쪽)과 수덕화 보살이 주지 대련 스님과 사찰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달았다. ‘말뚝’같은 신심도, 절을 아끼는 마음도, 공부에 대한 열정도 그렇다.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샘이 날 정도로 두텁다. 이 정도면 그야말로 도반다운 도반이다. 해명화 보살(김영주·46)과 수덕화 보살(박명애·50). 서울 종로 무악동 인왕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본원정사의 두 보살은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인정하는 보배 같은 존재다.

수덕화 보살은 겉으로 드러나는 수줍은 모습과는 달리 강단이 있다. 2002년 3월에 1000원 기도를 인제해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절에 나와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다. “매일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해명화 보살은 신도들 애경사를 일일이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잡다한 절 일을 모두 도맡고 있다. 해명화 보살은 30대 초반, 5살 난 딸과 함께 기도를 하기 위해 본원정사에 오게 되면서 맺은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곳에서 스님과 신도들과 함께 기거하며 절을 일구는데 힘을 했다. “다른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불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서예요.” 이런 굳은 신심이 바로 해명화 보살의 ‘힘’이다.

수덕화 보살은 본원정사 신도가 된 지는 7년. 하지만 어머니와 할머니가 이곳의 신도였고, 큰딸 김현지(18) 양도 본원정사 신도니 4대의 활발한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명화 보살의 에너지 원천은 따로 있다. 어머니를 따라 어릴 적부터 절에 다녔던 해명화 보살은 30대 초반, 5살 난 딸과 함께 기도를 하기 위해 본원정사에 오게 되면서 맺은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곳에서 스님과 신도들과 함께 기거하며 절을 일구는데 힘을 했다. “다른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불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서예요.” 이런 굳은 신심이 바로 해명화 보살의 ‘힘’이다.

해명화 보살 신도들 애경사 챙겨
수덕화 보살 4대가 불자 집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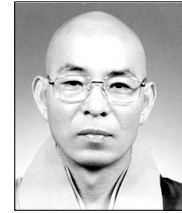
본심이 본원정사에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는 셈. 이렇게 보면 수덕화 보살이 본원정사 신행 단체인 보현회장을 맡아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두 보살은 요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도 불사와 신도교육에 몸을 아끼지 않는 주지대련 스님을 보면서 마음이 편할지 않다. 그래서 스님 뉘까지 해보라며 두 보살은 손을 꼭 잡는다.

한명우 기자

추천의 말

대련스님 본원정사 주지

적극적인 삶 신도들 귀감



우리 절 신도들 모두가 훌륭하지만 두 보살은 헌신적으로 절 일을 살피며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불자입니다. 신도회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와 돕습니다.

우리 본원정사는 서울시 민속자료인 선바위가 있는 전통사찰입니다. 이 두 보살을 포함해 여러 신도들이 절을 복원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지만 우리 두 보살과 같은 훌륭한 신도들이 있어 마음 든든합니다.

밀랍주조 대형범종 탄생

전통 밀랍주조방식을 통해 11분에 달하는 대형범종이 탄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성종사 대표이사 원광식은 조선시대 이후 소멸된 것으로 알려진 밀랍주조공법으로 3m17cm 높이의 범종을 제작, 3월 13일 공개했다. 강릉시의 요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7개월여 걸쳐 제작된 이 종은 ‘강릉 시민의 종’으로 명명됐다. ‘강릉 시민의 종’으로 명명됐다. ‘강릉 시민의 종’으로 명명됐다.

민의 종’은 강릉시청 앞 공원에 조성되는 종각에 6월경 설치된다. 범종 제작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형주조법과 달리 ‘강릉 시민의 종’에 사용된 밀랍주조법은 고열에 흠을 구워 만든 틀에 쇠물을 부어 종을 만드는 방법으로, 중국과 한국에서만 사용된 독특한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공법이 사라졌고, 중국도 문화혁명 이후 대가 끊겼다.

원광식 사장 10년 연구
한국만의 전통주조법 활용
‘강릉 시민의 종’으로 명명



6월경 강릉시청 앞 공원에 설치될 ‘강릉 시민의 종’

다시 밀랍주조법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1997년, 성종사 사장 원광식 씨에 의해 이뤄졌다. 원 사장은 10년여의 연구 끝에 밀랍주조법을 재현해냈고, 이 기술로 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로 지정됐다. 성종사에 따르면 밀랍주조법으로 제작된 종은 수분이 적어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 맑은 소리를 낸다. 또 흠으로 된 틀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면에 매끄럽고 조각이 섬세한 종을 얻을 수 있다. ‘강릉 시민의 종’도 이같은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다. 원광식 사장은 “97년 밀랍주조법 재현 이후 소형종을 제작해 왔으나 이번 범종은 대형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전통 종에 버금가는 범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옥천사암련 새회장 지원스님 군정발전기원법회 봉행



충북 옥천불교사암련회회는 최근 옥천 대성사에서 연합회 회의를 열고 지원스님(옥천 대립선원 주지)을 사암련회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지원스님은 회장에 선출된 직후 인사말을 통해 “2년 임기동안 연합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인원진편만 아니라 회원 사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옥천불교사암련회회는 지원스님 등 지역 사찰 스님들과 유봉영 군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대회의실에서 옥천군정발전기원법회(사진)를 봉행하고 지역 화합과 무사태평을 기원했다.

이날 법회에서 사암련회와 군정은 매년 열리는 영규대사 추모제에 불자들이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각급 기관과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광주 BBS 개국 9주년 범능 스님 초청 공개방송

광주불교방송(사장 이상진)이 개국 9주년을 맞아 범능 스님 초청 공개방송을 3월 14일 신세계백화점에서 개최했다.

‘범능 스님의 노래이야기’로 펼쳐진 이날 공연에서 스님은 “연재가 붙날엔 ‘설진강’ ‘산사문답’ 등 서정성 있는 노래를 불러 광주시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한편 이날 초대된 범능 스님은 1980년대 대표적 운동가요 ‘광주 출렁가’를 부른 민중가수(속명 정세환)로 광주노래패 ‘진구’를 이끌기도 했다.

스님은 89년 전남대 국악과에서 피리를 전공했고 중요무형문화재 51호 조공례선생에게 민요를 사사 받았다. 이준엽 기자

충주시 템플스테이 운영

충북 충주시가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템플스테이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설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충주시는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템플스테이’와 ‘팜스테이(Farm-stay)’ ‘홈스테이(Home-stay)’를 상설화하기로 하고 이를 운영할 사찰이나 가정 등을 모집한다. 충주시는 템플스테이 유치 사찰이 확정되면 관광정보사이트와 연계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각종 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운명적 현상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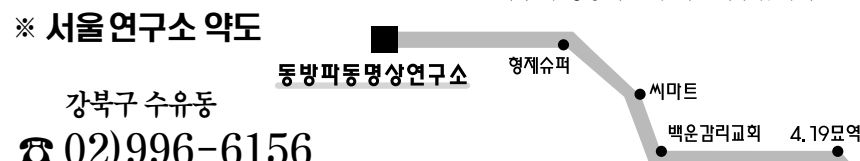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최영식 지음 | 인화출판사 값 9,500원

저자 범은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암매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현재 저자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 있다』
(다수의 영통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Fax : 051)817-6157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파동명상 요법」을 수련하게 되면...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자 또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의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운명을 읽어내려는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본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말을 듣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직접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시대**이다. 현생의 삶은 자신의 전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속에 예정되어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볼 수만 있다면 미래의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해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파동명상요법을 통하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운명적 사건과 영혼적 사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명: 제주(祭主) 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 원격명상제명: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명천도 할 수 있다.
-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교재: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 수련일시: 3월 둘째주, 넷째주 (화~금) ◆ 강의장소: 서울, 부산
-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도, 전화문의의 바람)
 - ①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수련과정으로 4일간 수련으로 수료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 ②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전문반을 수료한 자로서 본원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지도자 자격증 수여함.)